金 井 議 政

제2015-4호 2015년 4월 1일(수)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 기간 : 2015.02.26(목)~03.04(수) ▸7일간
▣ 장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
▣ 참석 : 의원전원
▣ 안건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
▷ 현장방문

연번	의 안 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13	15.3.2	수정가결

의정 일지

일시	내 용	비 고
3/2(월) 10:00	·상임위원회 조례안검토 및 현장방문	의원
3/2(월) 12:00	·도로관리원과의 오찬	의장
3/3(화) 10:00	·상임위원회 조례안심사 및 현장방문	의원
3/3(화) 15:00	·2015년 주민과의 열린 대화	의원
3/3(화) 19:00	·2015년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발대식	의원
3/4(수) 11:00	·제233회 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장 의원
3/5(목) 10:30	·구·군 의장 협의회 월례회	의장
3/5(목) 17:30	·2015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의장 의원
3/6(금) 12:00	·금정소방서 간부와의 간담회	의장
3/6(금) 15:00	·2015년 주민과의 열린 대화	의원
3/9(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3/9(월) 11:00	·구청 긴급현안 설명회	의원
3/9(월) 12:00	·금정경찰서 간부와 오찬 간담회	의원
3/9(월) 15:00	·2015년 주민과의 열린 대화	의원
3/10(화) 15:00	·2015년 주민과의 열린 대화	의원
3/12(목) 14:00	·의원 공무국외연수 출발	의원
3/23(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3/25(수) 12:00	·기관장협의회	의장
3/25(수) 15:00	·2015년 자치단체 노동조합 금정구지부 정기총회	의원
3/25(수) 17:00	·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장 이.취임식	의원
3/30(월) 11:00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 정기총회	의원
3/30(월) 18:00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부의장
3/30(월) 18: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 임원 회의	의원
3/31(화) 10:00	·글로벌 시민교육 청소년 리더쉽 워크숍 개회식	의원
3/31(화) 15:00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의원

주요 의정 활동

▣ 제233회 임시회 개회 현장방문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233회 임시회를 열고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장전지역 문화예술 공간인 '예술공연지원센터', '재미난 복수' 등과 서동지역 문화예술 공간인 '섯골문화예술촌'과 '서동예술창작공간' 및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하여 지역별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았다.

▣ 금정구의회 금정경찰서 간부와 간담회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3월 9일 점심시간에 박화병 금정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정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지역의 치안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2015년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실시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서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를 다녀왔다. 7대 의회의 첫 국외연수를 맞이하여 다섯명의 의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모든 준비과정과 방문기관 컨텍 및 일정 조정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서 국외연수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구의 '문화예술교육특구'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자 구청 관련부서 직원 3명이 포함된 총 20명의 연수자가 참여하였다.

공식 일정으로 네덜란드의 NDSM-Werf, 로테르담 실업학교, 암스테르담 교육청과 시의회, 암스테르담 보육시설, 벨기에의 몽스 문화재단 등을 방문하여 의원들의 사전 질의서를 바탕으로 한 브리핑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다.

▣ 공무국외연수,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원들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과 여행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은 매년 반복되다 못해 이제는 식상한 주제가 돼 버렸다."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의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선진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역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광역·기초의원 국외연수를 비판하는 주제의 기사가 매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금정구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왔다. 해결방안으로는 1.해외연수의 격년제 실시, 2.연수를 목적에 맞게 끌어갈수 있는 사전모임 구성 3.공무국외연수 전담기관의 필요성 4.전문 현지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5.방문일정의 효율성 제고 6.직원의 역할 제고 등의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제 7대 금정구의회에서는 제시된 문제해결 방안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었으나, 구의원 5인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연수 TF팀을 꾸려 민간여행사의 상품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자체적인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우선 4달간의 준비기간동안 전체 의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문화예술교육특구인 우리 금정구에 적합한 연수지역을 선정하였고, 3회 이상의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연수목적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
TF 팀은 간담회를 통해 얻어진 의견을 수렴하여, 10여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방문 대상으로 시의회와 교육청, 학교 등의 공공기관, NDSM-werf, 몽스문화재단 등의 공공단체 등을 선정했다. 또한 직접 해당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우리 금정에 접목 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방문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무국외연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연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동영상과 같은 학습자료를 배부하는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쳤다.

식당에서 김밥과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홍완표 의장은 구민들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 지역이 변함없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에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 바라며,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의원들도 구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였다.

금정구는 문화예술교육특구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29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교육 및 보육, 축제 및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부가적으로 광장과 보행환경 등의 도시시설, 지방행정 및 의정체계라는 테마를 정하고 네덜란드 및 벨기에 2개국을 방문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발달된 공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교육의 천국이라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MBO(실업학교)를 방문했다.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는 우리 현실에서 과연 공교육이 발달한 나라의 교육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했다.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라는 책을 보고 네덜란드를 방문지로 정했다.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 의원들이 직접 방문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차례 현지와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촉한 결과 공식 방문이 결정됐다. 방문지가 결정되고 난 후에는 의원들이 각자 각종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취합한 질문지를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사전에 보내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와 진학 전 보육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교육청과 연수 기간 중에도 일정을 조율해서 방문을 성사시켰다. 보육전문가와의 네덜란드 보육환경과 정책에 대한 간담회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효율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육현장을 보고 싶다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주선한 Pre-School(보육시설)을 방문해 취학 전 아동이 자유롭게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국민적 통합과 소통을 위해서 자국어 습득을 중요 교과 목표로 삼는 것도 목격했다. 암스테르담 교육청 방문 시 간담회 장소에 있던 지구본 모양의 암스테르담 지도에서는 암스테르담의 지향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지만, 철저히 그 에너지가 시민의 것이 되도록 네덜란드 자국어부터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금정구민들도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문화 축제분야, 도시시설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2개국의 여러 광장, 건축물, 종교시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시설을 돌아봤다. 대표적으로 낡은 조선소를 개조해서 예술인들에게 창작·전시공간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다시 지역에 문화·경제적으로 환원하는 NDSM-werf를 방문했는데, 금정구의 청년문화지원센터, 서동예술창작공간의 운영방식과 비교해 볼만한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방문지로 선정하고 의원들이 직접 섭외를 하고 통역을 하기도 했다. 직접 가서 보니 낡은 부두를 예술인의 창작·전시공간으로 용도를 전환하기 위해서 고치고 다듬는 방식의 도시재생의 의미도 더불어 발견할 수 있었다.

유럽은 도시가 광장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광장이 소통과 어울림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부산대학교 일원의 “젊음의 거리”는 유럽광장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수계획 단계부터 방문하는 도시마다 광장은 모두 방문했다. 그 후 활발한 토론을 통해 광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구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의 문화수도 몽스. 금정구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구 10만의 작은 소도시이면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과 경쟁해서 2015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몽스는 축제기획력과 바지런한 수행력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축제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결합하게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몽스의 사례를 통해,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윤산벚꽃축제를 개최하는 단위와 금정구청에서 우리 현실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모색하길 바란다.

보행 환경의 경우 사람, 자전거, 자동차, 트램, 지하철 등 많은 교통수단이 혼재돼 있다. 그럼에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았는데, 특히 아이들의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이상이 보행 중 사고이지만, 네델란드의 경우 18%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가보니 보도와 차도를 특별히 분리하지 않으면서 차도가 좁고 꺾인 구간이 많아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노상주차공간이 엇갈리게 배치되어 감속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들의 보행환경을 woonerf(보차공존도로 또는 완전도로)라 하는데, 이는 사람과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선시 되는 주거지역 도로를 일컫는다.

더불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의회와 미팅 일정을 잡고 사전에 네덜란드 지방행정과 의정체계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다. 시의회에서는 문화와 교육위원회 시의원 두 분과 만났다.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12개의 뚜렷한 색채를 지닌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의원을 선택하는 정치 풍토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서는 의원들이 철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준비한 과정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는 교육 및 보육, 축제 및 문화, 광장과 보행환경 등의 도시시설, 지방행정 및 의정체계에 대한 연수결과를 보다 생생하고 세밀하게 주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다음 호를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3.4.)

제 목 : 부산대학교 앞 맹물거리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은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매화를 보며 화사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반갑습니다. 정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금정구가 큰 예산을 들여 명품으로 조성했다는 부산대학교 앞 명물 거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맹물 거리로 되어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의 세월, 생활의 결, 문화, 경험 등이 오랜 시간 녹아들고 쌓여 그 지역만의 무엇을 담고 있는 곳을 부산의 간판 거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2007년 이후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부근의 대학로를 포함해 6곳의 특색거리를 조성해 왔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그렇고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곳에만 있는 톡톡 튀는 거리를 만들어, 부산의 새로운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민들에게 갖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금정구는 부산광역시로부터 9억 원의 예산을 받아 부산대학교 앞의 만남길 275m를 화강판석으로 포장해 2008년 준공했습니다. 2009년에는 대학1, 3로 400m를 10억 원의 예산으로 포장했고, 젊음의 거리 300m는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강판석으로 포장해 2010년 완공했습니다. 이밖에도 보도 조성 등으로 2007년 강변3로에 8억 원, 2007~2008년에 걸쳐 금강로에 4.8억 원이 들어갔고, 2010년에도 여기저기에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약 1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지하철 부산대역 앞 스마트 거리의 보도를 포함하면, 부산대학교 앞의 거리를 명물로 만들겠다며 길바닥에 쏟은 돈이 7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산대학교 앞의 거리는 지금 명물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번 사진은 2008년 9억 원을 투입한 공사 구간의 일부입니다. 한두 장씩 제 위치를 이탈한 화강판석을 대신해 군데군데 아스팔트가 채워져 있어 얼룩덜룩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진은 패션 거리의 모습입니다. 2009년 10억 원으로 조성한 곳인데,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인지 화강판석이 줄줄이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사진은 지하철 부산대역 1번 출구 앞입니다. 널찍하게 떨어져 나간 화강판석 자리에는 시커먼 아스팔트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사진은 명품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누더기 같은 형상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진에 찍힌 이곳만이 아니고 화강판석이 깔린 전 사업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강판석이 깨져 너덜거리는 부분, 시커먼 아스팔트로 땜질한 부분, 색상이 벗겨진 맨홀 뚜껑의 얼룩덜룩한 부분의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져, 명물은 고사하고 목불인견의 지경이지 않습니까? 금정구가 맨홀 뚜껑의 색상을 이처럼 화려한 것으로 정했을 때, 이것이 통행하는 차량과 행인에 늘 밟힌다는 사실에 관해 미리 얼마나 고심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런 예산 낭비의 경험을 앞으로의 조성사업에 살려 시행착오를 줄여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2015년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5억 원을 받아 문제투성이인 화강판석 도로를 더 만들 모양입니다. 부산은행 장전동지점 뒤편 갤러리안경의 안쪽 거리입니다. 이곳은 주점과 음식점이 즐비해 있어 물품을 실은 무거운 차량들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험상 바닥에 화강판석이 깔리면 길은 곧 누더기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앞에서 예시한 지난 경험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예산 낭비의 반복입니다.

금정구가 최근에 명물을 만든다고 거금을 투입하고는 맹물만도 못한 거리를 조성한 데 대해 겸허히 뒤돌아보고 이러한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